

新種 景氣 불황과 대응전략



李 鍾 勳 중앙大 부총장, 경제학 박사

환경변화와 신사고

21세기 를 눈앞에 둔 최근 국내경제는 물론이고 세계경제에도 기존의 사상과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세기말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의 중심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기존의 유럽과 미국중심의 사상과 논리로는 오늘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 종래 지배자들의 경쟁론으로는 오늘의 세계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인식과 신사고로 현재의 사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문제에 관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후진국과 약소민족이라고 하는 식민지 사관적인 고정관념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는 큰 착각인 것이다.

우리는 이제 4,580억 불의 GNP와 2,603억불

“

최근의 세계경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강화에서 볼 수 있듯이 종래의

냉전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복합국가에 의한 통합경제체제의 형성으로

지역경제협력시대를 지향하고 있다.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제(APEC)의

태동과 최근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등장은 아시아 후기 냉전체제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은 물론이고

체제간에도 지역경제협력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



의 무역규모를 달성하여 세계 제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7천만의 한민족은 세계 제14위의 민족국가가 되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서양중심의 교육을 통한 자학속에 얹은 고정관념으로 사물을 인식함으로써 현실을 외면하여 왔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에 대한 이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지금까지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는 37명에 달하는데 그중 25명이 미국학자이며 영국은 5명,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각각 2명, 그리고 나머지는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러시아가 각각 1명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미국은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일 뿐만 아니라 학문과 이론의 중심이 된지 오래다. 그리고 영국은 근대경제학의 탄생지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이론의 상식도 영국에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 결과 두번째로 많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의 이론이 일찍이 발전하여 학문적인 체계를 세워 노벨경제학상을 많이 받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스웨덴, 노르웨이 등의 순서로 현실의 경제는 반대로 좋지 않다고 하는 역설적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국내외적으로 세상이 너무도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학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감을 주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항상 변하고 발전하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하며 새로운 인식과 사고방식으로 오늘의 사실을 깨뚫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라고 하는 주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그 이론과 학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하고 발전하는 그 구체적인 사실을 인식하려는 신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많고 복잡한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체계화시킨 사실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

으로부터 인식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태평양시대

최근의 세계경제는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강화에서 볼 수 있듯이 종래의 냉전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복합국가에 의한 통합경제체제의 형성으로 지역경제협력시대를 지향하고 있다.

동아시아에 있어서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 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국을 단일시장으로 묶는 무역협정. 90년 3월 멕시코의 살리나스 대통령이 제의해 92년 8월 협정체결에 합의했으며 94년 1월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협정의 주요 골자는 ①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② 동일한 노동법과 환경보전법 적용 ③ 역내의 관세 및 수입제한을 단계적으로 낮춰 15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철폐할 것 등이다.

이 협정의 타결로 인구 3억 6000만 명, 국내총생산 6조 4000억달러에 이르는 북미 3국은 유럽경제지역(EEA)을 능가하는 거대한 단일 통합시장을 구축하게 됐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관세 무역일반협정(GATT)체제를 주도해온 미국이 경제의 신지역주의를 촉진, 세계 경제의 불록화를 가속시킴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WTO) 협상 등 국제무역질서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 세계의 무역거래가 북미 유럽 아시아 세 갈래로 크게 나누어짐으로써 세 경제권 사이의 경쟁관계가 치열해지면서 구조적 마찰도 빈번 할 것으로 예측된다.

체제(APEC)의 태동과 최근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의 등장은 아시아 후기 냉전체제에도 불구하고 국가간은 물론이고 체제간에도 지역경제협력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변화의 배경은 세계의 중심이 서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는 문명권 서진운동 이론이 역사적인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고대사회의 중심은 그리스였으나 중세봉건 사회의 중심은 그 서쪽인 로마였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근대사회의 중심은 로마가 아닌 그 서쪽에 있는 영국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 의 중심은 다시 영국이 아닌 그 서쪽에 있는 미국인 것이다.

이같은 세계문명의 중심이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였다는 것이 세계역사의 사실인 것이다. 그런데 그들 국가가 모두 전단계 문명권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이 우리가 배운 기존의 논리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오늘날 세계의 중심은 분명 미국인데 그 미국의 위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현상이 곧 세계경제와 미국경제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1945년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 세계총 GNP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던 그 미국이 이제 23%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세계 총무역량의 50%를 차지하였던 미국이 최근 20년간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세계 총외화의 50%를 차지하였던 그 미국이 이제 일본과 독일에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의 중심이 다시 미국에서 서쪽인 일본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물론 일본이 지금 세계의 중심이 될 수는 없지만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OECD 선진국 25개국 중에서는 무역흑자와 경제안정을 동시에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인 일본 때문에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대의 도래를 주장하는 이론도 있으며 그 근거도 적지 않다.

세계 문명권의 서진운동의 사실을 역사흐름의 연장선상에서 전망한다면 앞으로 우리도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 21세기는 중국의 유교자본주의가 세계의 중심체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과거 300여년간 서양의 기독교자본주의시대는 가고 동양의 유교자본주의가 번창할 것이라고 내다보고도 있다.

그 근거로 2010년에 가면 중국의 GNP가 구매력평가기준으로는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세계문명권의 서진운동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이미 5년전에 세계경제의 중심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제일의 무역대국인 미국무역의 지역별 구조를 보면 미국과 유럽전체와의 무역량보다도 태평양 건너 동북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대만, 홍콩, 중국)과의 무역량이 더 많으며 2000년에는 무려 두배가 된다고 한다. 이를 태평양시대라고 부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시 동북아시대라고도 말하고 있다.

전세계 216개국 중에서 고도성장(GNP 5% 이상)을 달성했던 나라는 여섯나라 뿐이며 앞으로 당분간 고도성장이 지속될 국가 역시 이들 여섯나라 뿐이라고 한다. 이들 나라는 곧 동북아시아의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이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중심이 동북아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2차대전 후 유럽의 부흥경제협력을 추진해온 유럽경제 협력기구(OECD)를 개발도상국 원조문제 등 새로 발생한 경제정세 변화에 적응시키기 위해 개편, 1961년 9월 30일 발족한 기구.

목적은 ① 재정금융상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고용,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세계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② 세계무역의 다각적이고 차별없는 확대에 공헌한다 등이다.

하부기관에 경제정책위원회, DAC, 무역위원회의 3개 주요위원회와 다수의 전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EC도 대표를 파견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로 29번째 가맹국이 되었다.

시아로 이동한다는 이론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그런데 이들 여섯나라가 전부 유교국가라고 하는 사실이 곧 유교와 경제발전과는 부정의 관계가 아니라 긍정의 관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선진국은 소득수준이 높고 따라서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3D산업'에서부터 산업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기업의 해외탈출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의 국제분업에 의한 국별생산 체계가 점차 기업간 공정별 분임에 의한 부품의 생산체계로 바뀌고 있다.

국제무역 역시 종래의 국가가 완제품 무역형태에서 이제는 기업간 부품무역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오늘의 세계경제는 지역협력속에서 다국적기업에 의한 무국적상품을 생산하는 사회와 기관·회사간에 거래하는 국제무역의 형태로

변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체계 역시 종래 제1의 생산요소(토지, 노동, 자본)로부터 제2의 생산요소(기술, 정보, 지식)의 결합에 의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그리고 다시 변이품종의 변이생산체제로 변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의 실체와 대응방안

한국경제는 9.3%라고 하는 세계적인 고도성장과 실업률 2.2%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제안정을 동시에 이룩하고도 경상수지의 적자가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하는 등 구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곧 불균형 성장에 의한 신이중구조의 심화와, 3D산업의 침체, 그리고 기술혁신의 부족 등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단기 계획을 세워 전국민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신이중구조의 심화방지

몇년간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 등의 중화학공업은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반면 섬유, 신발 등 경공업은 경기가 침체하여 도산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생산구조에서 경기가 이중적으로 나타나면서 중화학공업인 대기업은 번창하고 경공업인 중소기업은 쇠퇴하는 또하나의 이중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도시와 중소도시와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유통구조와 소비구조에도 경기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즉, 현대적인 유통기구인 백화점은 교통체증이 일어날 정도로 매출이 신장되고 있는데 반하여 전통적인 재래시장은 불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이 생산과 유통 그리고 지역간에 경기의 명암이 이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구조에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라는 이중적인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소비구조에 있어서도 고급품과 사치품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일반중용품의 수요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국민경제의 신이중구조(neo-dual economy)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고 있다.

최근 우리도 1인당 GNP가 1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이 해결되면서 선진국병인 '3D현상'이 만연되고 있다.

첫째 더럽고(dirty), 둘째 어렵고(difficulty), 셋째 위험한(dangerous) 일과 산업, 업종 및 직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1,2차 산업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에도 3차산업만 번창하는 산업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선진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산 및 산업구조가 조로현상을 보여 국민경제의 체질이 허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이나 영국은 이미 3차산업이 80%를 넘어서는 등 '3D현상'에 따른 탈산업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만성적인 실업과 저성장으로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 '물건장사'로 먹고사는 나라가 아니라 '돈장사'로 먹고살고 있기 때문에 '3D현상'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본은 '물건장사'와 돈장사에서 모두 흑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3D현상'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돈장사'를 해본 경험

이 없으면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우리는 오직 1,2차 산업을 번창시켜 '물건장사'를 지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에서 산업공동화로 물건장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정의 기본목표인 세계화는 우선 '3D산업'을 번창시킬 수 있는 차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3D산업'에 재정금융정책을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전국민적인 기술혁신운동

현재 우리에게는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혁신 운동(innovation=renovation)을 전국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당면과제가 되고 있다.

기술혁신은 기술개발과는 달리 신사고운동인 것이다. 전국민이 새로운 의식과 제도로 값싸고 질좋은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새로운 기법으로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세계적인 특허인 트랜지스터는 미국 벨연구소의 쇼코리 박사가 발명했지만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일본의 소니사가 처음으로 생산했으며 '워크맨'은 독일 특허인데도 일본이 이름을 먼저 상품화하여 세계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생활의 신기라고 하는 텔레비전 역시 미국에서 발명했지만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값이 싸고 질이 좋은 제품은 일본제품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동차 왕국인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일제 혼다라는 사실 등이 기술혁신운동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00 ppm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미국과 일본은 일찍이 1ppm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불량품이 하나라도 나와서는 안된

다고 하는 무결함운동(ZD =zero defect)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모두 불량률을 낮추는 전국적인 기술혁신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이는 곧 모든일에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현재 국정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있는 세계화전략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으로 승화시켜 세계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려는 무한경쟁전략으로 개방화와 국제화뿐만 아니라 국민 의식의 변화까지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의 상식적인 의미의 세계화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의식주의 기본생활에 있어서 외국제품의 비중이 아주 높은 상태이며, 식품과 의류의 경우 이미 50% 수준을 넘고 있다.

따라서 세계화는 이미 변하고 있는 우리의 생활 그 자체를 바로 인식하는 신사고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두부와 된장, 간장이 국산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세계적인 고급 넥타이와 신발도 OEM방식(주문자 상표부착)으로 그 일부는 국내에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결국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계는 가보라고 하는 생각과 국산시계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신사고가 바로 세계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종래의 후진국적인 고정관념을 버리고 동북아시아가 중심이 되는 21세기를 주도하기 위한 선진국적인 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제 생활의 양이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민적인 에너지를 계속 발산해야 할 것이며 이는 곧 경제적인 동기보다는 진지한 삶의 의의를 찾으며 마음의 여유와 안정을 기하기 위한 새로운 선진국적인 인식으로 내일을 설계할 때 오늘의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④